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AI 표기 변경으로 전환점 마련 이제는 소비홍보에 주력해야 할 때

지난 10월부터 지상파 방송과 각종 신문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 보도가 국내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9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 방송 및 신문을 통해 방송된 AI관련 기사는 총 8,152건(방송 1,007건, 신문 2,375건, 온라인매체 4,770건)으로 조사된 바 있다. 농림부를 위시하여 본회 및 양계관련 단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잉보도 자제요청은 물론 '조류독감'을 AI(인플루엔자)로 바꿔줄 것을 방송사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10월 30일부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꿀 것을 결의하였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양계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모든 용어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이다. 학계에서는 AI로 쓸 경우 저병원성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HPAI를 쓰는 것이 맞는 표현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AI로 해야 무슨 병인지 혼돈을 주어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많은 매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표기하고 있다.

모 언론사에서 표명했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용어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류독감(Bird Flu)'의 법정 용어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약칭 AI)'입니다. 세계보건기구(WTO)와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닭·오리 등 관련업계에서는 '독감'이란 표현이 불안감을 키워 소비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조류인플루엔자'로 바꾸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도 최근에는 HPAI와 AI를 구별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예외없이 '조류독감'이란 용어를 써 왔지만, 00신문은 11월 2일부터 법정용어인 '조류인플루엔자(AI)'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운동은 전 언론사에 전파되었고 양계산업 전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독 H신문만이 한글표기 사용, 용어의 차이 없음, 경각심 부여 등의 이유를 들어 '조류독감'을 고집해 오다

본회 등 관련단체에서 다시 찾아가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시키며 협조를 받아낸 바 있다. 30여년간 써온 용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용어는 아직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 오더라도 소비에 최대한의 완충작용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제 소비를 확대시켜 양계산업을 살리는 길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HPAI 유입경로 알고 대처하자 예방이 가장 큰 방어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국내에 발병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HP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발표를 꺼려하던 중국조차 HPAI의 발생사실을 공포하고 전면전을 선언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저병원성(H5N2)이긴 하지만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형이 발견되자 발생농장에 대해서 살처분을 감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독감이 대유행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가설을 앞세워 시를 그 원인으로 몰고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고 대처를 하면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HPAI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은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철새에 의한 국내유입, 둘째 공항만을 통한 불법 휴대 축산물, 셋째 해외여행객이나 해외 노동인력을 통한 유입경로로 나눌 수 있다.

지난 2003년 HPAI가 국내에 상륙했을 당시 감염경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발병한 충북 음성지역 인근에는 철새도래지가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철새에서 왔을 것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개 발병농장의 경우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는 단 한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가 감염차량 및 사양기구에 의한 전파, 인접전파, 오리이동, 사람왕래로 나타났는데 그중 60%가 감염차량 및 사양기구로 나타나고 있다. 즉, 차량 및 사양기구 등에 붙은 분변에 의한 전파가 상당부분 차지하였다. 철새에 의한 감염확률을 높여 주는 것은 금년에 철새 이동철을 맞이하여 러시아에서 발생된 HPAI가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과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국의 현재 발생상황 및 발생원인을 근거하여 국가별 발생위험수준을 고중저로 분류할 때 우리나라는 저위험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베트남, 중국, 러시아는 발생상재지역으로 분류되고 고위험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태국과 홍콩은 중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HPAI의 전파는 철새에 의한 것으로 기우고 있으며, 유입될 확률도 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이동제한을 통해 모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발생을 원천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철새로 원인을 몰고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철새무죄론'을 표명하기도 한다. 전파원인이 철새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가느냐가 HPAI를 예방할 가장 큰 열쇠인 것이다.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노력 오·남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우리나라의 동물약품 등 품목허가수는 금년 6월말 현재 9,472품목이며, 이중 동물약품이 5,894품목으로 이중 항생(항균)제는 2,676품목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 항생(항균)제 판매실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축산업 규모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들 보다 사용량이 높다는 지적이다. 축종별로 보면 배합사료 생산대비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량(kg/kton)은 2003년도 기준으로 돼지의 경우 81.4g/ton, 닭은 42.9g/ton, 소는 9.1g/ton으로 소에 비해서 닭과 돼지가 사료첨가용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계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문제는 근년 들면서 소비자 단체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문제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문제는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항균제를 수의사의 처방없이도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데 있으며, 이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 및 양계산물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 2004년 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료내 첨가용 동물약품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53개 항생제 및 약품제제가 25종으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양계분야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여름철 파리구제제인 사이로마진이 사료 첨가제로 사용될 수 없게 되면서 농가들 사이에 큰 불편이 따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의사, 축산 전공자, 업계, 사료회사, 동물약품업계, 소비자단체 등 70여명으로 이루어진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1차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모임은 오는 2006년 6월까지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항생제 사용절감 대책안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큰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양계산물의 경우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킬 경우 항생제 잔류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내 일부 도계장에서는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닭에 대해서는 출하를 늦추어서 받는 등 제품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을 하기도 한다.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용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양계**